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 유아의 기질, 유아 놀이성을 중심으로

조 송 립(가톨릭대 석사과정) · 문 혁 준(가톨릭대 교수)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돕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대상은 인천시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의 어머니 255명과 학급의 담임교사 21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용된 질문지는 첫째,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Buss와 Plomin이 개발한 유아용 EAS(Emotional, Activity, Sociability)척도를 수정·보완한 한세영(199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둘째,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nett(1990)이 개발한 유아의 놀이성 척도(Children' Playfulness Scale)를 김영희(1995)가 번역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oh와 Falbo(1999)가 개발한 사회적 능력 척도: 유치원용(Social Competence: Kindergarten)을 서유진(200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t-test와 ANOVA, 사후검증(Scheffé), Pearson의 상관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질의 신뢰도는 정서성 .78, 활동성 .74, 사회성 .72, 수줍음 .79로 나타났고, 놀이성의 신뢰도는 신체적 자발성 .84, 사회적 자발성 .88, 인지적 자발성 .72, 즐거움의 표현 .76, 유머감각 .80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능력의 신뢰도는 대인적응성 .73, 인기도/지도력 .89, 사회적 참여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의 차이에서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자발성, 유머감각에서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의 연령에 따라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놀이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사회적 능력은 대인적응성, 사회적 참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기질 및 놀이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능력의 하위변인 중 대인적응성은 유아의 기질의 하위 변인인 활동성, 사회성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수줍음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유아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사회적 능력의 하위변인 중 인기도/지도력은 유아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참여는 유아의 연령, 유아 기질의 하위 변인인 활동성, 사회성과 정적상관관계를, 수줍음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유아 놀이성의 하위변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대인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유머감각, 신체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인기도/지도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기질의 하위변인인 활동성과 수줍음,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사회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연령과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사회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인 것으로 나타났다.